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 지표 둔화세... 금리 인하 가능성
- USNews: 11월 미 내구재 주문 큰 폭 상승... 항공기 부문 덕분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신용카드 부채가 1조 달러를 초과한다

[주택]

- YahooFinance: 11월 미 신규 주택 판매, 12.2% 하락

[철강]

- WSJ: 백악관, “1백40억 철강 업체 인수는 정부의 국가안보 조사 필요”

[글로벌 무역]

- CNBC: 해상 컨테이너 운임 1만불 돌파... 홍해 위기로
- Bloomberg: 미 LNG 선박들, 아시아까지 도착 지연될 듯 ... 홍해 리스크 탓

[오일]

- Bloomberg: 유가, 두 달 만에 주간 가장 큰 폭으로 상승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나이키, 향후 수익 전망 낮추다... 소비 둔화 원인
- Bloomberg: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 생성형 AI 때문에 어려움 겪다
- CNN Business: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파라마운트, 인수 합병 가능성 논의
- WSJ: 중국계 소매기업들, 미국 내에서 빠르게 성장 중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Fed's Preferred Inflation Gauges Cool, Reinforcing Rate-Cut Tilt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 지표 둔화세... 금리 인하 가능성

-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지표는(변동상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 제외) 10월에 0.1% 하향 조정 된후에 11월에는 0.1% 상승했다. 이에 따라 연방은행의 금리 인하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 연준 선호 근원 인플레이를 작년과 비교해서는 3.2% 늘었다.
- 연준이 좋아하는 소식이지만 이번 보고서의 견조한 소득 수치는 소비 지출을 촉진하고 연준이 정책을 완화하기 전에 주시해야 할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된 개인 지출은 10월에 0.1% 상향 조정된 후에 11월에는 0.3% 상승했다.

- 소비자 지출을 뒷받침하는 실질 가처분 소득은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Bloomberg 기사

USNews: US Durable Goods Orders Surge in November on Aircraft 11월 미 내구재 주문 큰 폭 상승... 항공기 부문 덕분

- 11월 미 내구재 주문이 급등했는데 이는 항공기 주문이 크게 주도했다. 그러나 높은 대출 비용 때문에 장비에 대한 기업 지출은 부진했다.
- 연방 상무부의 오늘 금요일 발표에 따르면 이른바 토스터 부터 항공기에 이르기 까지 3년 이상 사용하는 각종 내구재는 지난달에 5.4% 상승했다.
- 경제에 10.3%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물론 내년에 금융 여건이 완화되고 금리 인상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은 둔화세다. 향후에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재고도 줄이고 있다.

USNews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Revenge Spending' Drives US Credit Card Debt Past \$1 Trillion 미 신용카드 부채가 1조 달러를 초과한다

- 미 경제가 활발한 가운데 미국인들은 저축을 줄이고 부채는 늘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소비자 지출이 계속될지 고민하고 있다.
- 미국의 신용카드 밸런스가 3분기에만도 4백80억불 늘어나 총 1조 8백억 달러에 달했다고 뉴욕 연방은행은 밝혔다. 이 수치는 연말 쇼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의 수치이다. 현재 연평균 이자율인 APRd 20%를 넘어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 가운데 청구 부채는 늘고 있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주택]

YahooFinance: New home sales tumbled 12.2 percent in November 11월 미 신규 주택 판매, 12.2% 하락

- 미국 센서스국에 따르면 11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12.2% 줄어 연간 59만채로 감소했다. 블룸버그가 조사한 전문가 예상치인 69만채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 신규 주택 중간값은 43만4천7백x불로 전년 동기 대비 6% 하락했다.

YahooFinance 기사

[철강]**WSJ: White House Says \$14.1 Billion U.S. Steel Sale Deserves 'Serious Scrutiny'****백악관, "1백40억 철강 업체 인수는 정부의 국가안보 조사 필요"**

- 백악관의 고위 자문위원의 일본 Nippon철강이 유에스 철강을 1백41억불에 인수키로 하는 거래는 그 거래가 국가 안보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때 심각한 정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가경제자문위원인Lael Brainard는 "의회가 권한을 부여한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간간 위원회(interagency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의 조사가 필요한 거래"라고 밝혔다.

WSJ 기사

[글로벌 무역]**CNBC: Container rates hit \$10,000 as ocean freight inflation soars in Red Sea crisis****해상 컨테이너 운임 1만불 돌파... 홍해 위기로**

- 약 1 천50억 상당의 해상 화물을 싣고 향해하는 1백58천의 선박이 홍해에서 반군의 공격 위험으로 부터 우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 화물가격은 치솟고 있다.
- 코비드 공급망 체인 인플레이가 수그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항해 루트에서 40% 상승한 해상 물류 가격이 1만달러를 치솟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가격 후려지치'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 글로벌 가구 회사인 IKEA는 해상 화물을 옮기는 옵션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CNBC 기사

Bloomberg: US LNG Cargoes to Asia Embark on Longer Routes to Avoid Red Sea**미 LNG 선박들, 아시아까지 도착 지연될 듯 ... 홍해 리스크 탓**

-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출발해 아시아로 향하는 LNG 선박들이 홍해를 피하기 위해 1달이 넘게 걸리는 항로로 변경하고 있다.
- 이는 후티 반군이 수백 척의 상업용 선박들이 더 긴 항로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면서, 운송을 지연시켜 글로벌 무역 흐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 LNG는 겨울동안 동북아시아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미국은 LNG 최대 수출국이다.
- 미국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짧은 항로는 파나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이지만, 현재 그곳의 선박들 또한 가뭄으로 인한 정체로 지연을 겪고 있다.

Bloomberg 기사

[오일]

Bloomberg: Oil Set for Weekly Gain as Red Sea Attacks Disrupt Global Flows

유가, 두 달 만에 주간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홍해 리스크로 인해 유조선들의 항해가 지연되면서, 유가가 두 달 만에 주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 브렌트 유가가 배럴당 80불에 형성됐으며, 앞으로 주간 4%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더 많은 배들이 수에즈 운하와 홍해를 우회하면서, 선적 비용 또한 크게 증가했다.
- 이번 주까지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 선박들이 홍해 남쪽 끝에 위치한 바브 알 만다브만에 들어갔으며, 이는 지난 3주간의 일별 평균 대비 40% 이상 감소한 것이다.
- 또한, 어제 목요일엔 앙골라가 OPEC 탈퇴를 공식화하고, OPEC 가입국이 12국으로 축소되면서 유가가 회복세로 돌아섰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Nike Sends Warning About Slowing Consumer Spending

나이키, 향후 수익 전망 낮추다... 소비 둔화 원인

- 나이키가 향후 수익 전망을 낮췄다. 이는 세계 소비자들이 소비에 더 신중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나왔다.
- 어제 목요일, 이 기업은 향후 수입 전망이 약해질 것이라 예측한다며 말했다. 또한, 앞으로 3년 동안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 20억 달러 비용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 이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1% 가까이 폭락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Amazon's Cloud Business Looks Vulnerable in Wake of ChatGPT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 생성형 AI 때문에 어려움 겪다

- 2022년 11월 OpenAI가 ChatGPT를 출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Open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사의 제품에 AI를 도입했다. 알파벳 또한 자사의 생성형 AI를 통해 같은 업무를 추진했다.
- 그 결과, 아마존 클라우드(AWS)는 차세대 스타트업들이 MS나 구글이 만든 AI를 통해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위협에 직면했다.
- 단기적으로 AWS는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의 서버는 아직 많은 기업들의 기본 설정으로 남아있으며, 아직 생성형 AI는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중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 그럼에도, Deloitte의 CEO인 JB McGinnis는 AWS가 사업 경쟁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AWS가 생성형 AI를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Warner Bros. Discovery and Paramount CEOs discuss possible merger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파라마운트, 인수 합병 가능성 논의

- 이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Warner Bros. Discovery의 CEO인 David Zaslav가 어제 목요일 Paramount Global의 CEO인 Bob Bakish가 만나 양 기업 간의 합병 가능성을 논의했다.
- 합병이 성사되면 CBS, CNN 그리고 다른 유선 방송 자신뿐만 아니라, Warner Bros와 Paramount의 방송국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거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Warner Bros. Discovery는 당분간 Paramount를 비롯한 다른 기업과 인수합병을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조세 법규가 2024년 4월 말까지 추가적인 인수 합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CNN Business 기사

WSJ: The China-Backed Retailers Shipping Millions of U.S. Packages a Day

중국계 소매기업들, 미국 내에서 빠르게 성장 중

- Shein과 Temu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 미국 내 잘 알려진 소매 기업들 만큼이나 매출을 올리고 있다.
- 중국 기반의 쇼핑 플랫폼인두 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물류 정보 업체인 ShipMatrix에 따르면, 각 기업은 미국 내에서 하루 평균 백만 개의 배송을 처리하고 있다.

- ShipMatrix의 회장인 Satish Jindel는 두 기업이 특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 시기 미국 내 하루 평균 택배량은 대략 8천2백만건이라고 말한다.
- 두 기업의 배송 총량은 아직 작지만, 미국 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 '그림자금융' 사모대출 가파른 증가세...부실누증 우려"

"은행 대출 깎간해지자 옮겨가...규제·투명성 떨어져 경계해야"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미국의 저신용 기업들이 그림자 금융에 해당하는 사모대출을 통해 고금리 차입을 늘리고 있어 향후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21일(현지시간) '2023년 미국경제 동향 및 2024년 전망' 보고서에 게재한 '미국 저신용 기업부채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 분석에서 "사모대출을 통해 부실 위험이 큰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증가하고 있어 저신용 기업 부채의 잠재리스크가 점증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사모대출 규모는 2018년 7천300억달러(950조5천억원)에서 2022년 1조5천억달러(약 2천조원)로 급성장했는데, 이 가운데 약 70%가 미국에서 취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